

6만여종 부품 차곡차곡... “수입차 1위 품질·서비스 이어갈 것”

르포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축구장 8개 규모... 150여명 근무
전기차 배터리 전용창고 구축 전망
“2027년까지 3만㎡ 추가 확장”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BMW그룹코리아 안성 부품물류센터. 외곽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장 8개에 맞먹는 21만 1500㎡(약 7만평) 규모의 부지가운데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는 마치 도시 외곽의 작은 공업단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지난 2017년에 오픈했을 때 투자 규모는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650억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BMW그룹코리아 정산청 애프터세일즈 총괄 본부장은 11일 BMW 부품물류센터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7년까지 3만 1000㎡ 면적 추가 확장을 통해 한국 고객이 부품을 필요로 할 때 즉각 제공하는 최전선이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중축 이후 BMW 부품물류센터의 전체 보관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품물류센터 안에는 별도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창고도 구축될 전망이다. 전동화 시대에 대한 준비성이 돋



BMW 그룹 코리아 안성 부품물류센터 (좌)외관 (우)내부



/BMW그룹코리아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모션센서를 통해 지게차와 작업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보이는 BMW 부품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첨단기술 기반 안전대책 확립

BMW 부품물류센터에 발을 들이자마자 웅장한 규모와 근로자들의 바쁜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BMW 부품물류센터는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 보관소, 웰컴 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150여명의 운영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면적 확장 이후 100여명이 더 근무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게차를 몰고 있는 작업자 역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모습이였다.

주변의 근로자들도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모션센서를 통해 지게차와 작업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현장이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공장 곳곳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소방 시설과 안전 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화재를 비롯한 여러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련된 예방책 덕에 안전을 최우선임을 알 수 있었다.

창고동에는 온도에 민감한 조기자동형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1만 3000개가 설치돼 세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천장뿐 아니라 부품을 보관하는 특정구역 보관대에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 화재 초기 대응 및 진압을 가능케 한다.

◆효율적인 부품 공급 시스템

BMW 부품물류센터는 약 6만여종에 달하는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부품 가용성도 BMW그룹이 제시하는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95%에 달해 부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며 적시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도 직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보유 부품의 종류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긴급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와 같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각 딜러사

지의 리드타임을 최소화한다. 딜러사는 부품을 더욱 빠르게 수급 가능해 수리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BMW 부품물류센터는 인공지능 부품 공급 시스템인 SRD(Supply & Replenishment for Dealership) 프로그램의 빅데이터 및 수요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전국 BMW 그룹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 수요량을 계절별, 시기별로 분석해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BMW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고객을 위해 최고 품질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 품질 제공과 고객 만족을 위해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 수입자동차 1위다운 리더십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디지털 콕핏 감마’ 공개... 운전자 상태 자동인식

졸음 감지시 가까운 카페 검색
“차별화된 운전자 경험 제시”

LG전자가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한데 모아 운전자 편의를 한층 진화시킨다. 운전자 상태를 자동 인식해 졸음이 감지되면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비용은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또 급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LG전자는 11일 미래 모빌리티 신규 콕핏(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자 공간) 콘셉트인 ‘디지털 콕핏 감마(Digital Cockpit gamma)’를 공개했다.



LG전자 11일 ‘디지털 콕핏 감마(Digital Cockpit gamma)’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비전 디스플레이 ▲커넥티비티&콘텐츠 ▲인텔리전트 HMI(Human Machine Interface) 모듈로 구성된 디지털 콕핏 감마. /LG전자

디지털 콕핏 감마는 ▲투명 올레드 계기판(클러스터) ‘비전 디스플레이’ ▲고객이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인텔리전

트 HMI(Human Machine Interface)’ ▲5G(5세대) 통신을 활용해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비티&콘텐츠’ 등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모듈형으로 구성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차별화된 운전자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만의 미래 전장 기술력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공식 홈페이지의 ‘모빌리티 랩 워크스 시리즈(Mobility Labworks Series)’를 통해 전장 솔루션 콘셉트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이는 완성차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LG전자가 모빌리티 기술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혁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트랜시스 비상경영 성명서 발표

현대트랜시스가 노조의 과업 종료와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성명서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위기극복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모비스, 경량 고분자 복합소재 서스펜션 선보

모듈신기술 성과공유회
새시, 콕핏 등 신기술 22개 공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통합 설계 경쟁력을 집약한 모듈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대거 공개했다.

자동차 모듈은 기능별로 수십에서 수백개의 부품을 통합한 중대형 부품을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특화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모듈을 경량화하거나 부피를 줄이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감성기술 도입을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콕핏모듈은 탑승객의 감정에 따라 실내 조명을 바꿔주고, 터치만으로 수납 공간인 클로브박스를 자동으로 열 수 있다.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의왕연구소

에서 ‘모듈신기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새시와 콕핏(운전석), 프론트엔드 모듈 등 자동차 3대 모듈의 연구개발 성과를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선보인 신기술 22개 중에서는 새시모듈을 구성하는 서스펜션에 경량 고분자 복합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금속소재의 코일스프링 대신 신소재로 판(版)형상의 스프링을 개발해 서스펜션에 적용, 새시모듈 중량을 줄이고 좌우로 쏠리는 힘을 견

디는 횡강성과 승차감을 높였다.

설계 효율화로 차량 하부 배터리 장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행거리를 향상하는 전기차 특화 새시모듈,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 운전석 조작용 일체를 의미하는 콕핏모듈에 조명 조정 등 각종 편의장치를 적용한 모듈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 모듈연구실장 박종성 상무는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용 모듈과 함께 자율주행과 연동한 요소기술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현재 새로운 우주왕복선 등을 개발 중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요구에 맞게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사업 확대에 따라 배터리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